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김 미 선**

1. 머리말
2.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
 - 1) 기행일기 형성기: 15세기~16세기
 - 2) 기행일기 확장기: 17세기
 - 3) 기행일기 전성기: 18세기~20세기초
3.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가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시기별 현황과 가치를 밝힌 것이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행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총 1,279편의 일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세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시기별 수량은 15세기 17편, 16세기 65편, 17세기 246편, 18세기 417편, 19세기 481편, 20세기(1910년까지) 52편, 시기 미상 1편으로, 15세기 중반 이후 꾸준히 기행일기 수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전 시기에 걸쳐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다수 등장했으며, 표류, 온천욕, 치료, 조문, 성묘, 과거시험 등 다양한 이유로 떠난 여정을 기록한 일기들도 볼 수 있었다. 비교적 초기에 기행일기를 남기고 후대의 기행일기 창작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김종직, 남효온, 김일손, 주세붕,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757)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paraoho@hanmail.net)

고경명 등이 있었으며, 10편 이상의 많은 작품을 남긴 인물로는 이정구, 허목, 김수증, 김창흡, 정약용, 홍경모, 송병선 등이 있었다.

1,279편이라는 기행일기 수량은 일기 중 매우 풍부한 것으로,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를 지님을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 일기자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기행문학, 일기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조선시대 여행문화 및 명승 연구의 토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주요어: 기행일기, 현황, 유람, 일기, 여행

1. 머리말

기행일기는 여행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작품성과 완결성을 갖춘 일기이다. 조선시대 선조들은 다양한 경험을 일기로 남겼는데, 이중 기행일기는 많은 수의 작품이 전해진다. 조선시대 일기를 조사하여 개인의 일기를 9가지로 분류한 황위주, 최은주의 연구 결과 기행일기는 각각 전체 806편 중 164편, 전체 943편 중 186편에 이르렀고,¹⁾ 호남문집 소재 일기를 조사하여 일기를 10가지로 분류한 김미선의 연구 결과 기행일기는 565편 중 322편에 이르렀다.²⁾ 조선시대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기에 특별한 경험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러한 작품이 후손들에게 읽히지며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행일기의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황위주, 최은주, 김미선 등이 일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행일기를 포함시키긴 하였지만, 기행일기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었기에 누락된 일기가 많았고, 산수유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기 형식인 기행일기

1)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83쪽;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12쪽.

2)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153쪽.

가 다수 포함되었지만,³⁾ 이미 조사된 것도 합쳐지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존재 해 기행일기의 전체적인 현황이 정리되지 못하였다.

필자는 한문일기가 본격적이면서 다양하게 창작된 조선시대의 기행일기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기행일기의 특징과 가치를 밝혀 기행일기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기행일기 조사를 위하여 본격적인 조사 전에 기행일기 범주와 기행일기 정리 현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⁴⁾ 기행일기 범주를 명확히 하고 선행 조사 결과를 본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기행일기의 범주는 다른 일기 장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정한 것으로서, 사행일기는 기행일기와 별도로 분류하였다. 일기 내용 안에 여정이 들어있으나 강학일기, 관직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장례일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기의 중심인 경우에는 해당 장르에 포함시켜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사행 중, 유배 중에 쓴 일기라도 특정 지역을 여행한 내용만을 기록한 일기의 경우⁵⁾에는 기행일기에 포함시켰다.

기행일기 정리 현황은 ‘일기 DB 내의 기행일기’·‘일기 해제집 내의 기행일기’·‘유기 관련 선집 내의 기행일기’로 나누어 살폈으며, 본 조사에서는 이들 선행 조사 성과를 반영하였고,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⁶⁾ 앞선 논문

3)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창문화사, 1996;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I, 민속원, 2007~2012;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I·II, 청송군, 2013~2014; 국립수목원,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3, 민속원, 2016 등.

4)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론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5) 사행 중 소림사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洪奭周(1774~1842)의 <遊盤山少林寺記>, 진도 유배 중 금골산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李胄(1468~1504)의 <金骨山錄>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유기 중에는 산에 대한 의론을 담은 글, 설명을 담은 글, 본인의 직접 유람을 담은 글 등이 있으며, 직접 유람을 담은 글에 일기 형식인 것이 많다. 본인의 유람 경험을 날짜별로 기록한 완벽한 일기 형식도 있지만, 날짜를 일부만 기록하거나 시기를 계절로만 표기한 것도 있다. 날짜 표기가 완전하지 않아도 유람 경험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경우 본 조사에 포함시켰다. 다만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의론이나 설명이 중심이라 여행의 과정이 드

에서 정리 현황을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 정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이렇게 기행일기 범주를 정하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조사한 결과 2019년 4월 현재 1,279편의 기행일기를 확인하였다. 필자는 기행일기를 시기별, 여행 목적별, 여행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본 논문은 기행일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마친 후에 발표하는 첫 논문으로서, 시기별로 현황을 정리하고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이후 여행 목적별, 여행 지역별로 분석한 논문을 차례로 발표하여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1,279편의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필자가 2년간 조사한 결과로서,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1인이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누락된 기행일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1,200편이 넘는 기행일기가 확인되어, 이들 작품만 분류하고 분석하여도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

조선시대는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1910년까지로, 일기의 기간이 이 사이에 해당되는 기행일기를 조사하였다.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일기는 1443년 6월의 유람을 기록한 成侃의 〈遊冠岳寺北巖記〉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일기는 1910년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화양동의 만동묘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魏啓龍(1870~1948)의 〈華陽行日記〉이다. 성간의 일기부터 위계룡의 일기까지 1,279편에 이르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수량 및 비율을 세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나지 않는 경우, 시간순이 아닌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본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으며, 후자의 예로는 李德懋(1741~1793)의 〈記遊北漢〉, 李鈺(1760~1815)의 〈中興遊記〉 등이 있다.

〈표 1〉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세기별 수량 및 비율

시기	수량(편)	비율(%)	비고
15세기	17	1.32	
16세기	65	5.08	
17세기	246	19.23	
18세기	417	32.60	
19세기	481	37.60	
20세기	52	4.06	1910년까지
시기 미상	1	0.07	
합계	1,279		

조선 건국 초기인 14세기말~15세기초의 기행일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15세기 중반부터 1910년까지 기행일기가 꾸준히 발견되었다. 일기의 수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며, 18~19세기에는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기행일기가 등장하였다. 단 10년간의 일기만 대상으로 한 20세기에 52편이 발견되어 조선시대 후기에 많은 기행일기가 창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일기의 기간이 두 세기에 걸쳐 있는 경우 일기가 시작되는 세기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연대별로 정리할 때도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연대별 수량을 제시하였다.

일기를 살펴보다 보면 날짜는 나오지만 연도가 나오지 않는 일기가 다수 있다. 이렇게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자 생몰연도, 일기의 내용, 문집에 함께 수록된 일기를 보면서 해당 세기에 일기를 포함시켰으며, 선행 연구에서 세기를 추정할 경우 그것을 참조하였다. 저자의 생몰연도가 두 세기에 걸쳐 있는 경우, 여행을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간다는 것을 고려하여 15세 이후 살았던 기간이 더 긴 세기에 해당 일기를 포함시켰다.

다만 저자가 1910년 이후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일기 연도가 미상인 경우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15~19세기에 두 세기에 걸쳐 저자가 생존한 경우 어떤 세기로 추정하여도 조선시대 일기인 것이 확실하지만 1910년 이

후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자가 19세기말~20세기초에 생존하였고 여러 편의 일기를 남긴 경우 1910년까지의 일기만 본 조사에 포함시켰다.

시기 미상 1편은 柳泗(1502~1571)의 『雪江遺稿』 부록에 수록된 〈遊浩歌亭記〉이다. 호가정은 유사가 1558년에 창건한 정자이고, 이 일기는 유사의 후손인 柳琮이 5월에 호가정에서 노닐 일을 기록한 것이다. 유종의 생몰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호가정은 1558년에 창건되었고, 이 일기를 수록한 문집은 1905년에 간행되어 조선시대 일기인 것은 확실하므로 본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조사 결과를 세기별로 분류한 결과, 기행일기가 등장하고 수량이 조금씩 증가한 15~16세기는 기행일기 형성기로, 기행일기 수가 급격히 증가한 17세기는 기행일기 확장기로, 가장 많은 수의 기행일기가 꾸준히 등장한 18세기~20세기초는 기행일기 전성기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눈 후, 각 세기별로 기행일기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기행일기 형성기: 15세기~16세기

(1) 15세기

기행일기는 고려시대에도 등장한다. 李奎報(1168~1241)가 1199년 9월부터 1200년 12월까지 전주 지역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南行月日記〉, 李穀(1298~1351)이 1349년 8월~9월에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東遊記〉 등이 있으나 현전하는 작품 수는 매우 적다. 기행일기뿐만 아니라 일기 자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조선시대로,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15세기 중반부터 등장한다.

15세기 기행일기는 모두 17편으로 이를 일기 기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에는 기행일기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일부 목록만을 제시할 것이다.

〈표 2〉 15세기 한문 기행일기⁷⁾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遊冠岳寺北巖記	眞逸遺藁	成侃	1427~1456	1443년 6월
2	遊頊流錄	估畢齋集	金宗直	1431~1492	1472년 8월 14일~18일
3	遊松都錄	潘谿集	俞好仁	1445~1494	1477년 4월~5월
4	東行記	臥遊錄	成侃	1439~1504	1481년
5	望洋亭記	懶齋集	蔡壽	1449~1515	1481년
6	遊漳山記	蓮軒雜稿	李宜茂	1449~1507	1483년 3월
7	遊金剛山記	秋江集	南孝溫	1454~1492	1485년 4월 15일~윤4월 20일
8	松京錄	秋江集	南孝溫	1454~1492	1485년 9월 7일~18일
9	智異山日課	秋江集	南孝溫	1454~1492	1487년 9월 27일~10월 13일
10	遊天王峰記	秋江集	南孝溫	1454~1492	1487년 9월
11	漂海錄	錦南集	崔溥	1454~1504	1488년 1월 30일~6월 4일
12	頭流紀行錄	潘纓集	金駟孫	1464~1498	1489년 4월 11일~28일
13	遊佳殊窟記	秋江集	南孝溫	1454~1492	1489년 8월
14	遊金剛錄	再思堂先生逸集	李龜	? ~1504	1493년 5월
15	遊松都錄	懶齋集	蔡壽	1449~1515	미상(3월)
16	伽倻山海印寺 釣賢堂記	臥遊錄	金駟孫	1464~1498	미상
17	遊瑞石山記	月城世稿 勉齋公遺稿	鄭之遊	15~16세기	미상

위의 표는 일기 기간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연도가 미상이나 15세기로 추정되는 3편의 일기는 표의 말미에 저자 생년순으로 정리하였다. 1440년대 일기가 1편, 1470년대 일기가 2편, 1480년대 일기가 10편, 1490년대 일기가 1편으로 15세기 후반기에 일기가 집중적으로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연도 미상인 3편의 일기도 저자가 15세기 중반에 출생하였으므로 15세기 후반기에 쓰여 졌을 가능성이 높다.

1480년대에 기행일기 수가 많은 것은 남효온의 일기가 5편에 이른 것의 영향이 크다. 기행일기는 생활일기, 관직일기 등 다른 일기에 비해 일기

7) 본 목록 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중심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이후 제시하는 일부 목록 표의 형식을 달리할 것이다.

기간이 짧고 완결성이 높아 문집에 수록된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여러 편의 기행일기를 남긴 경우도 많다.⁸⁾ 한 인물이 여러 편의 기행일기를 남긴 것은 남효온 이래 꾸준히 볼 수 있다.

이렇게 15세기 기행일기는 15세기 후반기에 다수 등장하며, 내용에 있어서는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대부분이다. 전체 17편 중 최부의 <표해록>을 제외한 16편의 일기가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이중 13편은 금강산, 지리산 등 산수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고, 유호인의 <유송도록>, 남효온의 <송경록>, 채수의 <유송도록>은 개성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산수나 古都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이후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많은 작품이 나타나며, 초기인 15세기 작품들은 후손들에게 널리 읽히며 기행일기 창작에 기여하게 된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의 산수유람에 대한 시문을 모은 책 『臥遊錄』⁹⁾이 현전하는데,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조선시대에 널리 읽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기가 저자의 문집과 『와유록』에 모두 수록된 경우 위의 표에서는 출전에 문집을 밝혔고, 『와유록』에서만 찾은 경우에는 출전에 『와유록』을 표기하였다. 그런데 문집에 수록된 일기 중 성간의 <유관악사북암기>, 김종직의 <유두류록>, 유호인의 <유송도록>,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송경록>, <지리산일과>, 김일손의 <두류기행록>¹⁰⁾, 이원의 <유금강록> 등이 『와유록』에도 실려 있다.

또한 『와유록』 수록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김종직, 남효온, 김일손 등의 작품이 후대의 금강산, 지리산 여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부 <표해록>은 제주도에서 고향인 나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표류와 이로 인한 중국 여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표류로 인한 여정을 담은 일기

8) 최은주는 기행일기가 다른 유형 일기들에 비해 거의 90% 이상이 저자들의 문집에 수록되어 전해진다고 하였고, (최은주, 앞의 논문, 23쪽) 김미선은 기행일기가 2편 이상 수록된 호남문집 58종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김미선, 앞의 책, 274~279쪽)

9) 이종목, 「해제」, 『臥遊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쪽.

10) 『와유록』에는 '續頭流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는 적은 편이지만,¹¹⁾ 표류라는 극한 상황과 그로 인해 거치게 된 새로운 지역의 모습, 감정의 변화 등이 있어 문학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최부의 <표해록>은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내용적으로도 풍부한 대표적인 일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15세기는 기행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로, 작품 수는 이후 세기에 비해 매우 적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2) 16세기

16세기 기행일기는 65편으로, 앞선 세기 17편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앞서 일기를 조사, 정리한 황위주, 최은주, 김미선의 연구 결과에서도 16세기에 일기가 증가하는데, 연구자별 일기 수량 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자별 일기 수량¹²⁾

	황위주	최은주	김미선	본 연구
14~15세기	15	7	5	17
16세기	165	142	75	65
17세기	243	211	59	246
18세기	305	228	57	417
19세기	437	273	172	481
20세기	178	27	197	52
미상	259	49	.	1
총 수량	1,602	937	565	1,279

황위주는 조선시대 관청·공동체·개인의 일기를, 최은주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를, 김미선은 호남문집 소재 일기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본 연

11)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중 표류로 인한 여정을 담은 일기로는 최부의 <표해록>,李志恒(1647~?)의 <漂舟錄>,張漢喆(1744~?)의 <漂海錄>,文淳得(1777~1847)의 <漂海始末>,梁知會(19세기)의 <漂海錄>,崔斗燦(1779~1821)의 <乘槎錄> 등이 있다.

12) 황위주, 앞의 논문, 770쪽; 최은주, 앞의 논문, 12쪽; 김미선, 앞의 책, 282쪽.

구와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다. 특히 김미선의 조사는 문집에 수록된 일기로 수록 형태에 제한을 두고, 시기는 조선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일기 총 수량은 다른 연구보다 적고, 20세기 일기의 수는 가장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15세기에 적은 수로 일기가 나타나다가 이후 일기의 수가 증가하며, 조선시대만 대상으로 할 때 19세기에 가장 많은 일기가 발견됨은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행일기 세기별 수량도 이러한 일기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한다.

15세기 기행일기는 후반기에 주로 나타났는데, 16세기는 어떠할까? 16세기 65편의 기행일기를 10년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6세기 한문 기행일기의 10년 단위별 수량¹³⁾

연도	수량	소계
1501~1510	4	8
1511~1520	0	
1521~1530	0	
1531~1540	1	
1541~1550	3	
1551~1560	6	45
1561~1570	3	
1571~1580	12	
1581~1590	12	
1591~1600	12	
미상	12	
전체	65	

1570년까지는 10년 단위로 0편~6편의 기행일기가 발견되다가 1571년부터는 10년에 12편의 일기가 발견된다. 16세기 후반기로 오면서 일기의 수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

13) 16세기부터는 일기의 수량이 많아 기행일기 목록 전체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단위별 수량을 제시하여 세기별 현황을 간략히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6세기 일기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른 시기의 일기 10편만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16세기 한문 기행일기 중 이른 시기 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遊天磨山錄	臥遊錄	朴間	1479~1504	1502년 2월~3월
2	金骨山錄	忘軒遺稿	李胄	1468~1504	1502년 9월
3	遊鳳凰臺志	希樂堂集	金安老	1481~1537	1503년 7월
4	遊白沙汀記	臥遊錄	南袞	1471~1527	1510년 8월
5	遊金剛錄	臥遊錄	成悌元	1506~1559	1531년 5월 8일~26일
6	遊七寶山記	錦湖遺稿	林亨秀	1504~1547	1542년 3월
7	遊靑涼山錄	武陵雜稿	周世鵬	1495~1554	1544년 4월 9일~18일
8	遊小白山錄	退溪集	李滉	1501~1570	1549년 4월 22일~26일
9	關東行錄	龍巖集	朴雲	1493~1562	1552년 7월 12일~8월
10	登德裕山香積峰記	葛川集	林薰	1500~1584	1552년 8월 24일~29일

16세기에도 15세기와 마찬가지로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많다. 그리고 작품 수가 증가한 만큼 여행 지역도 확대된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가게 되는 곳은 산수로, 그중에서도 산을 유람하는 경우가 많다. 15세기 기행일기에 등장한 산은 지리산, 장산, 금강산, 무등산, 가야산이었다. 이의무가 여행한 장산은 파주에 있는 산으로 알려진 산은 아니며, 나머지 네 산은 이후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기행일기를 남긴 산이다.

16세기에는 훨씬 다양한 산이 등장하는데, 위 표의 10편만 보아도 천마산, 금골산, 칠보산, 청량산, 소백산, 덕유산이 새롭게 등장한 산이다. 이외에도 청학산, 두타산, 묘향산, 향풍산, 내영산, 덕룡산, 구월산, 학가산, 덕수산, 북한산 등에 대한 일기가 등장한다.

산에 대한 기행일기 중 1544년 청량산 유람을 기록한 주세봉의 〈유청량산록〉, 1574년 무등산 유람을 기록한 高敬命(1533~1592)의 〈遊瑞石錄〉¹⁴⁾

은 청량산, 무등산을 유람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일기로, 후대의 기행일기 창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산 외에 고도를 여행한 경우 15세기에는 개성에 대한 일기만 3편 있었는데, 16세기에는 李德弘(1541~1596)의 〈東京遊錄〉, 洪聖民(1536~1594)의 〈鷄林錄〉과 같이 경주를 유람한 일기도 발견되었다.

유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여정길에 오른 경우도 15세기에는 표류로 인한 것만 있었다면, 16세기에는 온천욕을 하기 위한 여행을 기록한 朴雲(1493~1562)의 〈關東行錄〉, 李鐸(1509~1576)의 〈北征紀行〉, 묘지석 개수를 위한 여행을 기록한 文景虎(1556~1619)의 〈東行錄〉, 제주목사로 있는 부친을 방문하기 위한 여행을 기록한 林悌(1549~1587)의 〈南溟小乘〉이 등장하여, 적긴 하지만 기행일기에 나타난 여행 이유도 다양화되고 있다.

16세기의 마지막인 1590년대는 조선시대 가장 큰 전쟁인 임진왜란이 있었던 시기이다. 전쟁 중인 1592년~1597년에도 6편의 기행일기가 발견되며 모두 유람을 기록하고 있다. 李山海(1539~1609)의 〈望洋亭記〉(1592년)와 〈越松亭記〉(1592년), 趙守翼(1565~1602)의 〈遊九月山記〉(1594년), 申之悌(1562~1624)의 〈遊清涼山錄〉(1594년), 盧景任(1569~1620)의 〈遊金剛山記〉(1595년), 朴汝樑(1554~1611)의 〈夜遊普通溪記〉(1597년)가 그것이다.

이중 신지제의 〈유청량산기〉는, 관찰사가 거점으로 삼을만한 험준한 산의 형세를 보라고 하여, 당시 예산현감이었던 신지제가 산에 오르게 된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제목에 ‘遊’가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용은 청량산 유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쟁 중인 상황에 오르게 되었으나 산을 유람하는 것을 중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균은 조선시대 유람문화를 연구하면서 15~16세기를 본격적인 유람

14) 기행일기는 문집 안에 수록된 경우가 많으나 일기 전체가 필사본, 간행본의 형태로 성책되어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고경명의 〈유서석록〉은 이 일기만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전해져서 부호를 책 표시(『』)로 해야 원칙적으로는 옳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책의 형태와 상관없이 한 편의 일기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부호를 작품 표시(◇)로 하였다.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의 형성기, 16~17세기를 확산기, 17~18세기를 정착기, 18세기 이후를 유람문화가 일반화되는 보편기라 보았다.¹⁵⁾ 유람을 위한 여행은 기행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전쟁 중에도 이어질 정도로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널리 인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행일기 확장기: 17세기

17세기 기행일기는 246편으로, 16세기 65편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10년 단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16세기에 가장 많은 수량이 12편인 반면 17세기에는 초기 10년에 24편에 이르렀다. 17세기 기행일기를 전체를 10년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17세기 한문 기행일기의 10년 단위별 수량

연도	수량	소계
1601~1610	24	89
1611~1620	20	
1621~1630	22	
1631~1640	13	
1641~1650	10	
1651~1660	32	127
1661~1670	19	
1671~1680	29	
1681~1690	23	
1691~1700	24	
미상	30	
전체	246	

위의 표에서 보듯이 17세기에는 10년 단위로 10편~32편의 기행일기가 발견되며,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일기의 수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기행일기의 수가 많은 만큼 한 사람이 여러 편을 남긴 경우도 더 많으

15) 이상균, 「朝鮮和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쪽.

며, 17세기에는 10편 이상의 기행일기를 남긴 인물도 여러 명 나온다. 李廷龜(1564~1635)가 1603년의 금강산 유람을 기록한 〈遊金剛山記〉, 같은 해 북한산 유람을 기록한 〈遊三角山記〉, 1604년 사행길에 유람했던 일들을 기록한 세 편의 기행일기 〈游朴淵記〉, 〈遊千山記〉, 〈遊角山寺記〉를 비롯한 10편의 기행일기를 남겼으며, 이후 許穆(1595~1682)이 17편, 金壽增(1624~1701)이 12편을 남겼다. 이중 김수증의 기행일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김수증의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일기 기간
1	遊戲靈山記	1662년 9월 9일~14일
2	遊松都記	1670년 8월
3	遊白沙汀記	1672년 4월
4	七仙洞記	1677년 9월 25일
5	重遊七仙洞記	1678년 윤3월 12일
6	楓嶽日記	1680년 9월 18일~10월 5일
7	山中日記	1686년 1월 20일~28일
8	花山記	1686년 1월 20일~28일
9	寒溪山記	1691년 6월 6일~15일
10	遊華嶽山記	1691년 8월 28일~19일
11	遊曲淵記	1698년 2월 27일~미상
12	靑龍山靑龍寺記	미상

1662년부터 1698년까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년에 3편~4편씩 기행일기를 꾸준히 남긴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산수를 유람한 것을 기록한 것이며, 〈화산기〉의 경우 성묘를 위한 여정을 담고 있다. 곧 조선시대 선조들이 평생에 걸쳐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나며, 그중 가장 많은 여행 이유는 유람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7세기의 10년 단위 중 가장 많은 32편이 발견된 1651년~1660년의 경우만 보아도, 이 10년의 시간 동안 2편 이상을 남긴 인물이 5명 나온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1651년~1660년에 2편 이상의 기행일기를 남긴 경우

순번	저자	편수	일기명
1	權挺	2	關東遊山記(1657년), 再訪關東遊山記(1658년)
2	李馥	2	宣城往還錄(1658년), 基城往還錄(1659년)
3	許穆	3	戊戌舟行記(1658년), 高陽山水記(1658년), 三陟記行(1660년)
4	洪汝河	4	遊楓嶽記(1657년), 遊三日浦記(1657년), 叢石亭記(1657년), 遊國島記(1657년)
5	吳斗寅	5	淸涼山記(1651년), 浮石寺記(1651년), 漸夕泉記(1651년), 義巖記(1651년), 頭流山記(1651년)
6	朴長遠	5	遊淸平山記(1651년), 重遊淸平記(1651년), 麟遊記(1652년), 步上望昌山記(1654년), 白雲洞尋院記(1655년)

위 인물 중 권정, 이복은 이 시기 2편의 기행일기만을 남겼지만, 다른 인물들은 위 10년 기간 외에도 기행일기를 남겼다. 잠깐 언급했듯 허목의 경우 위 3편을 비롯한 총 17편의 기행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홍여하의 4편은 모두 1657년의 여행을, 오두인의 5편은 모두 1651년의 여행을 기록한 것으로서, 연속된 여정을 장소별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문집에 수록된 기행일기의 경우 연속된 여행이어도 장소에 따라 제목을 갖춘 다른 글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각 일기를 독립된 작품으로 정리하였다.

단 10년만 살펴봐도 이렇듯 한 개인이 여러 번 여행을 떠나 기행일기를 남기고, 연속된 여행이어도 장소에 따라 다른 완결된 글로 일기를 남기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17세기 중 다른 시기에도, 기행일기가 더 많이 발견된 18~19세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17세기 후반기의 유람문화에 대해 고연희는 “극성스런 유람문화”¹⁶⁾라고 까지 표현하였는데, 한 개인이 남긴 여러 편의 기행일기들은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 중에는 좁게는 누정 한 곳, 절 한 곳을 여행한

16) 고연희, 『조선 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7, 152쪽.

것이 있고 조금 넓게는 산을 여행하거나 고도를 여행한 것이 있다. 이런 경우 짧게는 하루나 이틀 만에 여행이 끝나기도 하며 길어도 한 달을 넘지 않는다. 17세기에는 기행일기가 증가한 것과 비례하여 한 달 넘게 여러 지역을 여행한 일기들이 눈에 띄는데, 丁時翰(1625~1707)의 〈山中日記〉(1686년 3월~1688년 9월), 李世龜(1646~1700)의 〈東遊錄〉(1691년 8월~10월)이 대표적이다.

정시한의 〈산중일기〉는 총 네 번에 걸친 578일간의 여정을 기록한 것¹⁷⁾으로, 기행일기 중 일기 기간이 매우 긴 편이다. 당대 명산과 절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담고 있어 17세기의 유람문화와 불교상황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여행의 이유도 17세기에는 16세기보다 더 다양해진다. 앞서 15~16세기 기행일기에 나타난 여행의 이유로 유람 외에는 표류, 온천욕, 묘지석 개수, 부친 방문이 있었다. 17세기에는 치료·조문·성모를 위한 여정, 관직 제수 및 사직으로 인한 여정, 상소를 올리기 위한 여정, 백일장이나 서원 건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여정, 지인을 방문하거나 글을 받기 위한 여정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유배 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간 여정을 기록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3) 기행일기 전성기: 18세기~20세기초

(1) 18세기

18~19세기는 일기도, 산수유기도 가장 풍성하게 창작된 시기이다. 기행일기는 일기의 형식이면서 여행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일기 중에서 여행을 기록한 것, 산수유기 중에서 일기 형식인 것이 기행일기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와 산수유기가 가장 많이 나타난 18~19세기에 기행일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 조사 결과 18세기 417편, 19세기 481편에 이르는 많은 기행일기를 찾을 수 있었다.

17) 오주학,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쪽.

〈표 9〉 18세기 한문 기행일기의 10년 단위별 수량

연도	수량	소계
1701~1710	35	155
1711~1720	32	
1721~1730	31	
1731~1740	22	
1741~1750	35	
1751~1760	33	210
1761~1770	42	
1771~1780	34	
1781~1790	46	
1791~1800	55	
미상	52	
전체	417	

417편의 18세기 기행일기를 10년 단위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18세기에는 17세기 246편보다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례하여 10년 단위별 일기 수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17세기에는 10년에 32편인 것이 가장 많았는데 18세기에는 10년에 55편까지 이르며, 18세기 마지막에 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다.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에 산수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남긴 인물로 金昌協(1651~1708), 金昌翁(1653~1722) 형제가 있다. 고연희는 17세기 말 산수기행문학을 성행시킨 장본인이었다고 판단하였는데,¹⁸⁾ 그에 걸맞게 이들의 문집에서 각각 7편, 12편의 기행일기를 볼 수 있었다. 김창협 의 일기는 7편 중 1702년 8월의 유람을 기록한 〈游晚翠臺記〉 1편만이 18세기에 해당되고 6편은 17세기의 일기였으며, 반대로 김창흡의 일기는 12편 중 1688년 3월~4월의 유람을 기록한 〈丹丘日記〉 1편만이 17세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11편은 18세기의 일기였다.

이중 김창흡의 일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고연희, 앞의 책, 15쪽.

〈표 10〉 김창흡의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일기 기간
1	丹丘日記	1688년 3월 4일~4월 7일
2	湖行日記	1702년 2월 12일~25일
3	雪岳日記	1705년 8월 24일~12월 5일
4	關西日記	1706년 4월 11일~5월 18일
5	嶺南日記	1708년 2월 3일~윤3월 21일
6	遊鳳頂記	1711년 9월 8일
7	平康山水記	1715년 3월 16일~25일
8	北關日記	1716년 2월 27일~4월 24일
9	南遊日記	1717년 2월 27일~3월 24일
10	五臺山記	1718년 윤8월 5일~10일
11	南征日記	1719년 9월 1일~29일
12	蔚珍山水記	미상(18세기로 추정)

위 표를 통해 김창흡이 약 30년에 걸쳐 꾸준히 여행을 떠나고 일기를 남긴 것을 볼 수 있다. 거의 유람을 기록한 것이고, 〈호행일기〉는 고모 문상을 위해 회덕을 방문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김창협, 김창흡 형제가 17세기말~18세기초에 기행일기를 남겼다면, 반대로 18세기말~19세기초에 기행일기를 다수 남긴 인물이 있다. 바로 丁若鏞(1762~1836)으로, 그의 기행일기 17편을 발견하였다. 〈遊勿染亭記〉(1778년), 〈遊瑞石山記〉(미상, 1778년 추정), 〈遊水鍾寺記〉(1783년), 〈月波亭夜遊記〉(1787년), 〈南湖汎舟記〉(1789년), 〈丹陽山水記〉(1790년), 〈遊洗劍亭記〉(1791년), 〈再遊蠡石樓記〉(1792년), 〈永保亭宴遊記〉(1795년), 〈遊天真菴記〉(1797년), 〈谷山北坊山水記〉(1798년), 〈紫霞潭汎舟記〉(1798년), 〈蒼玉洞記〉(1799년), 〈觀寂寺記〉(1799년), 〈遊石林記〉(1800년), 〈汕行日記〉(1823년), 〈遊烏棲山記〉(미상, 18세기 추정)가 그것으로, 이중 〈산행일기〉 1편만이 19세기 일기이고, 나머지는 18세기 일기이다. 그의 일기는 18세기 후반 기행일기를 풍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18세기에도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많으며, 이 시기에 백두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의미가 있다. 1751년 5월~6월에 갑산부사

로서 백두산을 유람하고 남긴 李宜哲(1703~1778)의 <白頭山記>, 1764년 5월~6월 함경도 경성의 유학자로서 경성부사를 따라 백두산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朴琮(1735~1793)의 <白頭山遊錄>, 1766년 6월 갑산 유배 중에 백두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徐命膺(1716~1787)의 <遊白頭山記>가 그것이다.

백두산이 위치한 함경도 지역은 17세기까지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곳이다.¹⁹⁾ 그렇기 때문에 관직, 유배 등의 이유로 백두산 인근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이 백두산을 유람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후 19세기에도 적은 수이긴 하나 백두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가 발견된다.

18세기 여행의 이유 중 앞전 시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과거시험이 있다. 과거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과거로 인한 여정을 일기를 통해 자세히 볼 수가 있다.

李基敬(1713~1787)의 <槐黃日記>(1737년)와 <己未行程歷>(1739년), 申象岳(1713~?)의 <恩遊日記>(1765년), 宋志行(1741~1802)의 <會行日記>(1773년), 尹孝寬(1745~1823) 후손이 쓴 <旅遊日錄>(1777년), 申國賓(1724~1799)의 <西行日記>(1795년)가 과거로 인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로, 송지행은 과거시험을 치르고 낙방한 후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난 일까지 일기에 담고 있다.

한편 李德懋(1741~1793)의 <西海旅言>은 1768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의 일기로, 종누이가 시아버지 상을 당하자, 남편을 따라 황해도 장연에 있던 종누이를 데리러 다녀 온 일을 기록하고 있다. 앞선 기행일기에서 볼 수 없었던 여행 이유로, 당시 삶의 한 면모를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2) 19세기

19세기 기행일기는 481편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며,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1,279편의 37%를 차지한다. 이 481편의 기행일기를 10년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박정혜, 「남승도로 본 조선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63쪽.

〈표 11〉 19세기 한문 기행일기의 10년 단위별 수량

연도	수량	소계
1801~1810	44	162
1811~1820	29	
1821~1830	34	
1831~1840	22	
1841~1850	33	
1851~1860	59	247
1861~1870	46	
1871~1880	43	
1881~1890	42	
1891~1900	57	
미상	72	
전체	481	

19세기에도 다수의 일기를 남긴 사람들이 많으며, 일기의 수가 증가한 것과 비례하여 20편 이상을 남긴 사람도 발견된다. 李象秀(1820~1882)와 宋秉璿(1836~1905)이 20편 이상의 기행일기를 남긴 인물로, 이상수는 29편을, 송병선은 22편을 남겼다.

이상수의 경우 29편의 기행일기를 남겨,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남긴 사람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하지만 1856년에 금강산 일대를 여행했던 일이 여행 장소에 따라 24편²⁰⁾의 글로 나뉘어 문집에 수록되어 있어,²¹⁾ 더 다양한 여행을 보여 준 인물은 송병선이라 할 수 있다.

20) 〈始登金水亭記〉, 〈禾積淵記〉, 〈東行山水記〉, 〈踰鐵鼻嶺記〉, 〈至長安寺記〉, 〈長安東明鏡臺記〉, 〈長安東靈源洞記〉, 〈誤尋百塔記〉, 〈宿靈源菴記〉, 〈長安北西抵表訓寺記〉, 〈表訓寺歇惺樓登眺記〉, 〈表訓北西須彌塔記〉, 〈表訓北萬瀑八潭記〉, 〈衆香城記〉, 〈楡店寺西隱仙臺記〉, 〈楡店寺舊閣記〉, 〈神溪寺西九龍淵記〉, 〈神溪西北萬物草記〉, 〈高城西望金剛外山記〉, 〈高城東海金剛記〉, 〈高城北三日湖記〉, 〈並海北行記〉, 〈通川北叢石記〉, 〈舟至穿島記〉

21) 현대에 이상수의 글을 연구하면서 24편 중 세 번째 글의 제목인 '동행산수기'로 이 글들을 연구하기도 한다. (김재식, 「嵒堂 李象秀의 山水論과 '東行山水記' 分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9~70쪽) 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문집 편제상으로는 24편이 각각 다른 글로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집 편제에 따라 각각 다른 동등한 글로

송병선은 22편의 기행일기를 남겼으며, 이중 21편은 19세기의 일기이고, 1편은 20세기의 일기이다. 이 22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송병선의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일기 기간
1	遊黃山及諸名勝記	1866년 4월 6일~20일
2	遊金烏山記	1866년 8월 18일~미상
3	西遊記	1867년 9월 10일~11월
4	東遊記	1868년 3월 21일~5월 6일
5	智異山北麓記	1869년 2월
6	瑞石山記	1869년 2월
7	赤壁記	1869년 2월
8	白巖山記	1869년 2월
9	兜率山記	1869년 2월
10	邊山記	1869년 2월
11	德裕山記	1869년 5월
12	黃岳山記	1872년 9월
13	修道山記	1872년 9월
14	伽倻山記	1872년 9월
15	丹晉諸名勝記	1872년 9월
16	錦山記	1872년 9월
17	頭流山記	1879년 8월 1일~미상
18	遊昇平記	1882년 5월 2일~6월
19	遊嶠南記	1891년 3월 1일~4월
20	遊月出天冠山記	1898년 윤3월 6일~4월
21	遊安陰山水記	1899년 3월
22	遊華陽諸名勝記	1902년 3월

정리하였다. 이상수의 문집은 《한국문집총간》 속집 134에 영인되어 있으며, ‘한국고전종합DB’에서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도 원문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집에 대한 DB 구축은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조사할 때 ‘국립중앙도서관’, ‘남명학교문헌시스템’, ‘미디어한국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교넷’,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한국고전종합DB’, ‘호남기록문화유산’ 등에서 제공하는 DB를 활용하였다.

송병선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나며, 이를 위와 같은 일기로 남겼다. 1869년과 1872년 여행의 경우 연속된 여정이 장소별 다른 글로 수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상수에 비해 이런 경우가 적은 편이다. 또 <서유기>, <동유기>는 긴 여정을 담고 있으며, 일기 안에 여정별로 소제목을 달고 있고 양적으로도 풍부하다.

18~19세기에 살았던 洪敬謨(1774~1851)의 문집에서도 15편에 이르는 기행일기를 발견하였다. 그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10대 후반에 <西征記>(1791년), <仙樓陪遊記>(1792년)를 남겼으며, 이 두 편 외 일기 중 10편은 연도가 확실한 19세기 일기, 3편은 19세기로 추정되는 일기였다.

많은 수의 기행일기를 남긴 세 사람의 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세기에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가장 많다. 그리고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일기의 수량이 많은 만큼 유람 외 다양한 여행 이유도 볼 수 있다. 표류, 조문, 제사, 성묘, 과거시험, 온천, 글 청하기, 지인 방문 등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떠난 일이 19세기 기행일기에도 담겨 있다.

이 시기 표류로 인한 여정을 기록한 일기는 3편인데, 이중 梁知會(19세기)의 <漂海錄>과 崔斗燦(1779~1821)의 <乘槎錄>은 1818년에 함께 표류했던 일을 기록한 것이라 흥미롭다.²²⁾

또 1855년에 지도에 유배 중인 유치명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한 金翊東(1793~1860)의 <湖南紀行>, 1878년에 흑산도에 유배 중인 최익현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한 金勳(1836~1910)의 <黑山錄> 등이 있어, 조선시대 선조들이 험한 유배지인 섬까지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가는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는 문집 간행이 활발했던 시기로,²³⁾ 문집 수록이 용이했던 기행 일기가 문집에 담겨 소실되지 않고 더 많이 남겨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두 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2 - 인천·경기』(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09~116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조선후기에 문집 간행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진의 「朝鮮朝文集 刊行의 諸樣相 - 朝鮮後期 事例를 中心으로」(『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남권희, 노경희, 성봉현 등이 함께 저술한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글항아리, 201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또한 시기적으로 현대와 가까워 문헌의 유실이 적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외부적 요인과 유람이 유행하였던 조선후기 상황이 맞물려 18~19세기에 풍부한 기행일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3) 20세기초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한문 기행일기를 연구하는 것으로 시기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20세기 중 나라를 빼앗긴 1910년까지의 여행을 기록한 일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10년의 기간이지만 연구의 편의상 세기별로 시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20세기를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소제목에는 세기 다음에 ‘초’를 붙여 시기가 제한적임을 드러냈다.

편의상 나는 것이긴 하지만 기행일기 수량도 52편에 이르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 시기라 20세기를 별도로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일기 기간이 가장 늦은 10편의 일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3〉 20세기 한문 기행일기 중 마지막 시기 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華陽洞記行	心石齋集	宋秉珣	1839~1912	1909년 3월 9일~18일
2	遊長壽坊記	默齋集	黃復性	1880~1985	1909년 봄
3	瑞石遊覽記	秋山遺稿	金雲憲	1857~1936	1909년 4월
4	入伽倻山記	石谷散稿	李圭峻	1855~1923	1909년 5월
5	僊庵尋瀑布記	惺軒集	林翰周	1871~1954	1909년 여름
6	南遊日記	滄庵集	趙鍾憲	1858~1927	1910년 1월 9일~17일
7	自活山至華陽洞記	滄庵集	趙鍾憲	1858~1927	1910년 2월~3월
8	遊頊流錄	錦石集	裴聖鎬	1851~1929	1910년 3월 14일~20일
9	自華陽入仙遊洞記	滄庵集	趙鍾憲	1858~1927	1910년 3월 5일~6일
10	華陽行日記	梧軒遺稿	魏啓龍	1870~1948	1910년 8월 19일~9월 23일

20세기에든 기행일기는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많다. 위 김운덕의 〈서석 유람기〉, 배성호의 〈유두류록〉과 같은 일기를 통해, 혼란한 시대 상황 속

에서도 무등산, 지리산을 여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위의 10편은 마지막 시기 약 2년간의 일기만 제시한 것인데, 조종덕의 기행일기가 3편에 이르러,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나고 다수의 일기를 남기는 것도 여전히 볼 수가 있다.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많고, 글을 받거나 지인 방문을 위한 여정을 담은 일기가 있는 등 이전 시기 기행일기의 면모가 20세기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국토가 침탈당하던 당대의 상황이 반영된 일기도 다수 발견된다.

1905년 12월~1906년 1월에 추월산을 유람한 일과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한탄을 함께 기록한 文昌圭(1869~1961)의 〈湖行日記〉, 1907년 순사에게 잡혀간 스승을 따라 호남에서 서울까지 왕복한 여정을 기록한 安圭容(1860~1910)의 〈師門陪從日記〉, 1907년 대마도 유배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과 성묘하러 간 일을 기록한 林炳瓚(1851~1916)의 〈還國日記〉 등을 통해 20세기초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의 여정을 볼 수가 있다.

김미선은 호남문집 소재 일기를 연구하면서 20세기 후반기까지의 일기를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호남문집 소재 일기는 1900년대 48편, 1910년대 42편, 1920년대 36편, 1930년대 32편이 발견되었고,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연대별로 2편~9편이 발견되었다.²⁴⁾ 본 연구에서는 1910년까지의 일기로 제한을 하였지만, 이를 통해 한문 기행일기도 1910년까지 활발히 창작되다 이후 점점 사라져 갔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가치

필자는 2년의 조사 끝에 1,279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확인하였으며, 세기별로 정리하였다. 이는 기행일기에 대한 정리 중 가장 많은 분량이며, 여러 연구에 흩어져 있던 기행일기를 종합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1,200편이 넘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가치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24) 김미선, 앞의 책, 139쪽.

첫째,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우리나라 일기자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일기가 현전하고 있으나 그 존재유무 자체를 몰라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조사 결과 1,200편이 넘는 기행일기를 확인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 일기의 수량을 한층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일기는 내용에 따라 생활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일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기행일기는 작품 수가 많은 장르에 속한다.

앞서 1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일기를 연구한 황위주와 최은주는 164편과 186편의 기행일기를 확인하였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를 연구한 김미선은 322편의 기행일기를 확인하였다.²⁵⁾ 일기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가장 많은 일기를 DB로 제공하는 ‘국학진흥원 일기류DB’의 주제별 분류 중 기행일기는 2019년 4월 현재 125편이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확인한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1,279편으로 그 어느 조사보다도 많은 기행일기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이 수량은 황위주와 최은주의 조선시대 개인일기 전체 수량인 806편, 943편, 김미선의 호남문집 소재 일기 전체 수량인 565편보다도 많은 것이다.

선행 일기 조사는 기행일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장르의 일기를 조사한 것이었으므로, 기행일기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필자가 더 많은 일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앞선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수합하고 새로운 조사를 추가하여 많은 일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러 장르의 일기 중 사행일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지만,²⁶⁾ 강학일기, 유배일기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가 기행일기를 조사하여 많은 일기를 확보한 것처럼, 장르별 일기 조사를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일기는 더욱 많이 확보될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기행문학, 일기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25) 황위주, 앞의 논문, 783쪽; 최은주, 앞의 논문, 12쪽; 김미선, 앞의 책, 153쪽.

26)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있다. 기행일기는 여행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행문학에,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기문학에 속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1,279편의 기행일기는 기행문학, 일기문학 연구자들에게 풍부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여, 기행문학, 일기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본 연구에서 파악한 속리산 기행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속리산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遊俗離山記	東庵遺稿	洪大龜	1610~1694	1648년 가을
2	遊俗離山錄	伊溪集	南夢賚	1620~1681	1654년 3월
3	遊俗離山記	松月齋集	李時善	1625~1715	1685년 8월 25일~9월
4	遊俗離山錄	寒泉堂遺稿	吳再挺	1641~1709	1693년 9월
5	俗離南遊錄	芳谷集	鄭衍錫	17세기	미상(5월 6일)
6	遊俗離山記	正菴集	李顯益	1678~1717	1706년 9월 16일~23일
7	俗離山記	諫議公遺稿	宋教明	1691~1742	1740년 4월 13일~15일
8	俗離山記	立齋遺稿	姜再恒	1689~1756	1744년 4월
9	俗離行記	荷棲集	趙璈	1727~1787	1747년
10	遊俗離記	秋波集	釋弘宥	1718~1774	1763년 9월 9일
11	遊俗離山記	典庵集	姜鼎煥	1741~1816	1766년 3월
12	遊俗離山錄	魯宇集	鄭忠弼	1725~1789	1780년 10월 16일~11월 11일
13	遊俗離山記	遲庵集	李東沆	1736~1804	1787년 9월
14	俗離山遊錄	明庵集	都禹環	1755~1813	1800년
15	俗離遊記	淵泉集	洪奭周	1774~1842	1803년 3월 1일
16	遊俗離山錄	玉泉聯芳稿	姜周祐	1754~1821	1808년 8월
17	遊俗離山記	晤堂集	李象秀	1820~1882	1850년 9월 8일~9일
18	俗離會遇記	晤堂集	李象秀	1820~1882	1862년
19	遊俗離山記	壺山集	朴文鎬	1846~1918	1868년 4월 9일~미상
20	遊俗離山記	溪墅稿	李溪墅	19세기	1871년 가을
21	遊俗離山記	松菴遺稿	愼在哲	1803~1872	미상(3월)
22	遊俗離山記	一適齋集	張泰秀	1841~1910	1885년

필자의 조사 결과 발견한 속리산 기행일기는 위와 같이 22편이며, 이외에 속리산 운장대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宋文欽(1710~1752)의 〈雲藏臺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속리산도 여행한 金岱鎭(1800~1871)의 〈南歸錄〉, 朴齊望(19세기)의 〈東遊錄〉 등도 있다.

속리산 기행일기에 대해서는 산수기행문학의 측면에서 김용남이 연구 성과를 남겼다.²⁷⁾ 그는 유기로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속리산을 직접 유람하고 남긴 글을 대상으로 하여 필자의 기행일기와 대상이 비슷하다. 그런데 그의 조사 결과로 언급된 작품은 모두 12편으로,²⁸⁾ 이중 한시인 蔡壽의 〈遊俗離山記行贈旭上人〉을 제외한 일기는 11편²⁹⁾이었다. 곧 필자가 기행일기를 조사한 결과 11편의 속리산 기행일기를 더 찾은 것이다. 앞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다면 속리산 기행문학의 시기도 확대되고, 내용도 풍부하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조선시대 여행문화, 지리 및 명승 연구의 토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일기는 현실 속 저자의 감정을 볼 수 있는 진솔한 문학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당대의 세세한 삶을 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도 의미가 크다. 그중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15세기부터 조선이 사라져 간 20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작품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여행문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여행을 떠났으며,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여행경로로 택한 길은 어떠한지, 먹은 음식은 무엇인지 등등이 기행일기에 담겨 있다. 실제 정치영은 유산기를 자료로 하여 사대부들의 산수유람 문화를 파악한 책을 출간하였다.³⁰⁾ 그는 북한산, 금강산, 속리산, 청량산, 가야

27) 김용남, 「조선후기 俗離山遊記에 나타난 산수관」,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2005; 김용남, 「이상수의 俗離山遊記에 드러나는 議論의 강화와 그 특징」,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28) 김용남, 앞의 논문, 2005, 114쪽.

29) 위 표의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3번, 17번, 18번, 19번 일기가 김용남의 논문에 제시된 작품이며, 이중 오재정의 〈유속리산록〉, 이현익의 〈유속리산기〉를 제외한 9편이 김용남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책에는 저자와 작품에 대한 간략 설명, 번역문,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30)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산, 지리산, 백두산 유산기를 자료로 하였는데, 이 중에는 일기 형식인 것이 많다. 여기에 활용된 속리산 유산기는 11편³¹⁾으로 이 중 李萬敷의 〈俗離山記〉를 제외한 10편은 기행일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10편 중 강정환의 〈속리산기〉를 제외한 9편은 김용남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작품이다. 필자의 조사 결과로 파악된 속리산 기행일기는 22편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더 다양한 시기, 다양한 사람들의 속리산 여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로 유람뿐 아니라 표류, 온천욕, 치료, 조문, 성묘, 과거시험, 지인 방문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가 확인되어, 조선시대 여행문화를 확장하여 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행을 다녀온 일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정보, 조선시대 명승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행일기 연구를 위해서는 지리, 명승에 대한 연구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대로 조선시대 지리, 명승을 연구할 때 기행일기가 중요한 토대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기행일기 자체가 조선시대 지리, 명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지리나 명승을 연구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영, 박정혜, 김지현은 조선의 명승을 연구하면서 각각 지리지, 남승도, 고시문을 활용하였다.³²⁾ 지리지, 지도, 그림, 한시에 더해 1,279편에 이르는 방대한 기행일기는 조선의 지리, 명승 연구의 중요한 토대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행일기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많으며, 이들이 다닌 곳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 많다.

근현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생겨났지만 웅장한 산은 그 모습을 지키고 있으며, 곳곳의 누정, 절 등도 옛 면모를 갖춘 곳들이 있다. 이런 곳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의 역사를 증

31) 위의 책, 15쪽.

32) 정치영 외,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명해 줄 수 있으며, 여행지에 대한 일화를 제공할 수가 있다. 지리산, 속리산처럼 익히 알려진 산에 대해서는 기행일기가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고, 진도에 유배 중이던 이주가 금골산을 다녀와 쓴 <금골산록>과 같은 일기는 관광지로서의 진도에 이야기를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군별 여행 코스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과 같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때, 기행일기 속 저자들이 거닌 경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행하는 동안 이 여행지와 관련한 기행일기, 한시 등 작품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여행자들에게 여행과 함께 전통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 다양한 지역의 기행일기를 확보하였으니, 앞으로 해당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필자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총 1,279편의 기행일기를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이를 세기별로 15세기 17편, 16세기 65편, 17세기 246편, 18세기 417편, 19세기 481편, 20세기(1910년까지) 52편으로 정리하였고, 시기 미상 1편을 확인하여, 15세기 중반 이후 기행일기가 꾸준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유람을 기록한 일기는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꾸준히 많은 작품이 발견되었으며, 표류, 온천욕, 치료, 조문, 성묘, 과거시험, 지인 방문 등 기행일기 속 여행의 이유도 후기로 갈수록 다양화됨을 볼 수 있었다. 15~16세기에 기행일기를 남기고 후대의 기행일기 창작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김종직, 남효온, 김일손, 주세붕, 고경명 등이 있었으며, 기행일기의 수량이 증가하면서 10편 이상의 많은 작품을 남긴 인물들도 볼 수 있었다. 17세기의 이정구, 허목, 김수증, 17~18세기의 김창흡, 18~19세기의 정약용, 홍경모, 19세기의 이상수, 19~20세기의 송병선이 이에 해당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가

치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일기자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기행문학, 일기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조선시대 여행문화 및 명승 연구의 토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필자가 약 2년간의 기행일기 조사를 마친 후에 발표한 첫 논문으로서,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살폈다. 여행의 목적, 여행한 지역도 기행일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기행일기를 여행 목적별, 여행 지역별로 살피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최대한 많은 기행일기를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누락된 기행일기가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가 조사, 수정, 보완을 시행하여 더욱 완전한 기행일기 연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논문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면 관계상 1,200편이 넘는 기행일기 목록 전체를 제시할 수 없어 연구자들이나 대중들이 기행일기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기행일기의 제목, 출전, 저자, 일기 기간, 주요 내용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하여 기행일기를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필자의 연구가 기행일기 연구, 우리나라 일기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3, 민속원, 2016.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기행일기2 - 인천·경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 국립수목원,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臥遊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I·II, 청송군, 2013~2014.
-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창문화사, 1996.
-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I, 민속원, 2007~2012.
-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2. 논저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7.
-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론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 _____,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_____,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김영진, 「朝鮮朝 文集 刊行의 諸樣相 - 朝鮮後期 事例를 中心으로」,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 김용남, 「이상수의 俗離山遊記에 드러나는 議論의 강화와 그 특징」, 『고전문화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_____, 「조선후기 俗離山遊記에 나타난 산수관」,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2005.

- _____,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 김채식, 「晤堂 李象秀의 山水論과 ‘東行山水記’ 分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남권희 외,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 오주학,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정치영 외,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3. 기타

- <http://db.itkc.or.kr/>(검색일: 2019.3.31.)
- <http://diary.ugyo.net/>(검색일: 2019.4.10.)
- <http://kyu.snu.ac.kr/>(검색일: 2019.3.31.)
- <http://memoryhonam.co.kr/>(검색일: 2019.3.20.)
- <http://nmh.gsnu.ac.kr/>(검색일: 2019.3.28.)
- <http://www.mkstudy.com/>(검색일: 2019.3.27.)
- <http://www.nl.go.kr/>(검색일: 2019.3.31.)
- <http://www.ugyo.net/>(검색일: 2019.3.25.)
- <http://yoksa.aks.ac.kr/>(검색일: 2019.3.31.)

〈Abstract〉

Status and Value of Joseon-era Classic Chinese-written Travel Diaries

Kim, Mi-Sun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value of Joseon-era classic Chinese-written travel diaries by period. Travel diaries, from 1392 to 1910, were comprehensively surveyed, revealing a total of 1,279 pieces of diaries. They were sorted out by century. The number of Joseon-era classic Chinese-written travel diaries was found to be 17 in the 15th century, 65 in the 16th century, 246 in the 17th century, 417 in the 18th century, 481 in the 19th century, and 52 in the 20th century (until 1910), with one piece with its author unknown, confirming that, after the mid-15th century, the number of travel diaries steadily increased.

By contents, multiple diaries about sightseeing travels were found across the periods, and there were also diaries about travels which were made for the purpose of drifting, hot spring bath, treatment, and condolences, visit to ancestral graves, taking the prestigious government examination Gwageo, etc. The figures who left their travel diaries in their relatively early times and influenced the creation of travel diaries of writers in later times included Kim Jong-jik, Nam Hyo-on, Kim Il-son, Ju Se-bung, and Go Gyeong-myeong. Those who left 10 or more pieces of diaries included Lee Jeong-gu, Heo Mok, Kim Su-jeung, Kim Chang-heup, Jeong Yak-yong, Hong Gyeong-mo, and Song Byeong-seon.

The 1,279 pieces of travel diaries are a large number among the various diaries, and this study found that Joseon-era classic Chinese-written travel diaries have value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y can contribute to the securing of more historical diaries of Korea. Second, they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travel literature and diary literature. Third, they can offer the

basic data for the study of Josen-era travel culture and sightseeing places.
Fourth, they can be used to invigorate local tourism.

* Key Words: Travel Diaries, Status, Sightseeing Travel, Diary, Travel

· 논문투고일: 2019년 4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15일 · 게재결정일: 2019년 5월 15일
